음악으로 묘사한 '심우도'

윤소희씨 '牛圖' 등 작곡발표회…11일 부산문화회관

"우리 집뒤에 아담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의 벽에서 심우도를 처음 보았습니다. 본성을 찾는 수행과정을 10개의 그림으로 묘사한 심우도벽화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감동은 오래 가슴에 남았고 제 창작심을 북돋았지요. 구상을 거듭한 끝에 우도(牛圖)가 태어났어요."

한때 출가를 고려했을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작곡가 윤소희씨(동국대 국악과 강사)가 작곡발표회를 11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만남 등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시도한다는 평을 듣고 있는 윤소희씨는 이번 발표회에서 거문고 독주곡 '牛圖'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一如', 범패와 사물놀이에 의한 '엔트로피 1', 가야금독주곡 '두꺼비 집이 여물까' 등을 발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곡들은 대부분 불교를 소재로 했다. '牛圖'는 거문고의 깊이있는 선율을 통해 ①尋牛(소를 찾으러 감) ②見跡(소의 발자국을 발견) ③見牛(소를 발견) ④得牛(소의 고삐를 붙잡음) ⑤牧牛(소를 기름) ⑥騎牛歸家(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 ⑦忘牛存人(소는 잊고 사람만 있다) ⑧人牛具忘(사람도 소도 다 잊느다) ⑨返本還源(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다) ⑩入鄽垂手(세상으로 나간다) 등 불성을 찾는 10가지 수행의 과정이 때로는 고조되는 음계로, 때로는 스르름 줄을 훑고 내리며, 때로는 자진모리 산조가락으로 풀어나간다. 울림이 담담하고 깊은 격조가 있는 거문고의 다양한 주법을 통해 마음자리찾기과정이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망우존인' 부분에서는 소를 얻은 기쁨이 더욱 극대화되어 기쁨 그마저도 넘어서서 잡고 있던 소마저도 놓아준다는 내용이 거문고의 격한 연주가 자지러들면서 요란한 북소리가 울려퍼지고 이때 슬대(거문고를 쳐서 소리내는 막대기)도 놓고 평안의 세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표현되며 '인우구망'에서는 모든 소리가 10.8초간 멈춘다. 이는 명상에 잠긴다는 것과 108번뇌가 모두 끊어졌음을 표현한 것.

범어사에 자주 가는데 밤새도록 곡을 쓰다가 문득 듣는 새벽예불의 사물(四物) 소리가 영혼을 깨우는 소리같이만 느껴진다는 윤씨는 예불소리에 큰 매력을 느껴 이번 '엔트로피'에 예불의 종송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다.

지난 겨울 해인사 백련암에서의 삼천배후 매일밤 자기전 108배, 광명진언과 능엄주를 잊지않고 한다는 윤소희씨는 부산대 예술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지난 2월 부산대 대학원에서 '한국전통음악의 변조에 관한 연구-산조를 중심으로 서양의 그레고리오 선법, 조성음악과 비교하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곧 박사코스를 밟을 예정.

"내가 왜 그토록 그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 늘 갖고있던 근원적인 물음에 비로소 답을 주었던 부처님 초기경전 〈아함경〉의 감동을 음악으로 옮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0〉

마음 알기가 경전

如來四十九年說 석가여래의 49년 설법은
(여래사십구년설)
達觀烘爐一點雪 통달히 살피면 이글대는 화로의 한 점 눈인데
(달관홍로일점설)
饅將黃葉止兒啼 부질없이 누렁잎을 황금이라 하여 아이 울음
(만장황엽지아제) 그치고
更爲迷人標指月 다시 어리석은 이 위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
(갱위미인표지월) 키나
月在天心標在指 달은 중천에 있고 표적은 손가락에 있으니
(월재천심표재지)
定眼指頭徒汨汨 시선을 손가락 끝에 정해 놓고 한갓 골골한다
(정안지두도골골)
疏杰百家何枝蔓 백가의 주소를 초록한들 어쩌면 가지요 줄기
(소초백가하지만) 이니
指掌提耳慈悲切 손바닥에 쥐어주고 귀에다 일러 자비도 간절
(지장제이자비절) 하나
此道亡羊不可尋 이 진리 양을 잃은 것 같아 찾을 수가 없으니
(차도망양불가심)
聽冰狐疑誰與決 얼음을 귀로 들어야 하는 여우 의심 누가 해결
(청빙호의수여결) 하랴
若了自心心是經 만약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 마음이 경
(약료자심심시경) 전이니
如來說法何曾別 여래의 설법과 어찌 구별된 적이 있으랴.
(여래설법하증별)

경암대사의 시이다. 제목은 '강사의 노래(講師行)'이다. 가르침이나 배움의 어려움을 은연중에 말하였다. 대사 자신이 양 종의 대종사였으니 강사로서야 가장 우두머리인 셈이다. 그러니 어쩌면 자신의 회고록이 될 수도 있다.

석가여래께서 발제하에서 시작 녹야원에 이르기까지 49년 설법이 한 말씀도 한 일이 없다는 무소설은 이글거리는 화로에 떨어지는 눈이 흔적도 없듯이 어느 자취로 설명되어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런 단풍 잎이 황금으로 비유되어 하늘 위의 진리의 값어치로 설명도 되고, 달을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는 손가락을 빌려 가리켜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손끝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는 손가락만을 보고 끝내 달을 놓치는 어리석음도 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주석을 내어 친절히 길을 일러주나 이 또한 가지에 가지가 달리고 줄기에 줄기가 뻗어, 마치 지름길이 많아 잃은 양을 기어이 놓치고 마는 꼴이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 얼음 밑의 물 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는 여우의 의심을 누가 해결하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밝아야 되니, 이 마음이 경전이다. 강사의 가르침은 무엇인고. 달이 아닌 손가락인 것을.

이종찬 〈동국대 교수〉

日서 백제 관륵스님 목간 발견

아스카사 연못서 간지연대도 확인

일본 최초의 불교사원 아스카사 인근에 있는 나라현 아스카 연못유적지에서 '천황(天皇)'이라는 한자와 함께 백제승려 '관륵(觀勒)'의 이름을 적은 목간(사진)들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일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발굴작업 중 당시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 등에서 길이 11.8㎝ 폭 1.9㎝ 크기의 목간 5천점 이상을 발견했으며 천황, 관륵 외에 '정축년(丁丑年·천무천황6년(677)으로 추정)'이라는 간지연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문화재전문가들은 이번 발굴이 천황호칭의 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 7세기 중반~8세기 초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관륵이 602년 역법, 천문, 지리 등과 불교, 도교를 전하는 등 일본 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최초의 승정이 됐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륭사의 다카다 요시노부 관장은 "법륭사 초대 별당(사원을 총괄하는 승관)으로 기록돼 있는 관륵이 실재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향후 아스카사와 법륭사의 관계, 관륵이 조정에서 수행한 역할 등이 밝혀지면 아스카시대의 불교사 및 사회정세 해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 남산…' '북한문화재…' '한국의 고건축'

문화재연구보고서 잇단 발간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보고서가 잇따라 발간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경주 서남산의 불적을 정밀조사한 〈경주남산의 불교유적Ⅱ-서남산 사지조사보고서〉와 북한소재 문화재 중 주요 석조물을 소개한 〈북한문화재해설집-석조물편〉을 펴냈다.

〈경주남산…〉은 광복이후 처음으로 간행되는 경주남산사찰 종합조사보고서. 90년부터 95년까지 미술공예실이 정밀조사한 경주 서남산지역 절터 77개소의 지형측량도면을 비롯 탑, 불상 등 절터 관련 자료가 유적설명, 도면, 도록과 함께 자세히 수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원가능한 유적은 용장골 약사불좌상, 약수골 석불좌상, 삿갓골 석불좌상 등 불상 3구를 비롯 별천룡사지, 용장골 등의 탑재 4기와 천룡사지, 창림사지 등 사지 2곳이다.

〈북한문화재…〉는 석탑 46건, 부도 18건, 석등 10건, 석당 4건 등 총 1백73건의 석조물에 대한 해설이 수록돼 있다. 석조물편에 이어 올해안으로 목조건축편이 간행되며, 이후 고고미술, 민속, 천연기념물편이 계속 발간될 예정이다.

건축문화재 기록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의 고건축〉19집에는 미황사 대웅전과 응진전이 소개돼 있다.

성륜스님 명상노트

성륜스님이 네번째 명상노트 '가자 저 열반의 나라로'를 펴 냈다.

스님이 직접 그린 선화와 사색하게 만드는 정겨운 글이 들어 있는 올 칼라로 된 이 명상노트는 깔끔한 편집이 돋보이며 일기장 메모지 편지지 시작노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합창단원 모집

조계종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은 불교소년소녀합창단 제5기 정기단원을 모집한다. 공개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는 단원들은 오는 4월 25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연주회, 방송출연, 음반취입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02)725-7527

문화소식

전법용 경전 보급

불광문화사업부는 불자들에게 널리 애송되고 있는 '보왕삼매론' '법등일송' '마음다스리는 글' 등 3종류를 전법용으로 펴 냈다. 불자 및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받아보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이 전법용 글들은 단체주문시 특별할인된다. (02)420-3300

강정숙서화전 '성황'

소현당 강정숙씨의 서화전이 4일부터 10일까지 공평아트센터 1층에서 열렸다. 강씨의 첫 개인전인 이번 전시회는 산수화, 사군자, 병풍, 국한문서예 등 총 94점이 전시돼 호평을 받았다. 홍석창교수(홍익대)는 "강정숙은 한국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등을 고루 공부하여 글씨에는 書意가 나타나고 그림에는 書意가 풍기고 또한 여러 스승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어느 한 유파에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개성미를 발견할 수 있고 문인화가가 지녀야 할 천진무구한 품격을 느낄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

◇강정숙作 '水蓮'.

광복이전 비공개자료집 발간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고문서' 등 3권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년여간 실시해온 광복이전 비공개자료 및 중요문서 검토작업을 일부 완결하고 〈광복이전 박물관자료목록집〉, 〈유리원판 목록집Ⅰ〉, 〈조선시대 고문서〉 등을 3권을 발간했다.

〈광복이전 박물관…〉은 광복이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정리한 것. 보존·발견·진열·기부·고적조사·지정 등의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문화재연구 및 보존관리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원판 목록집Ⅰ〉은 1909년에서 1930년 사이에 촬영된 3만8천여장의 유리원판을 수록, 문화재는 물론 풍속·생활·주거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다양한 모습과 상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고문서〉는 조선황실박물관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유물 및 광복이후 새로 수집한 유물 총 2백여건이 상세한 도판과 함께 실려있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제19회 만해백일장 대상에 장미경씨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주최 제19회 만해백일장에서 장미경(29)씨의 '님'이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1일 동국대에서 열린 만해백일장에는 초·중·고·대학일반부 등 총 8백여명이 '님' '금' '계단' 등을 주제로 문재(文才)를 겨룬 가운데 김지윤(양재고 2년)군 등 4명이 장원, 김영민(동대부고 1년)군 등 4명이 우수상, 김나영(보현사학생회)양 등 20명이 입상, 김정환(한마음선원)씨 등 5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님

뒷담 돌쩌귀에
솜양지 꽃 피었습니다.

어린 대궁에 앉은
한 마리 나비처럼
노란꽃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기른 것은 다 님이라' 더니
꽃샘불 때마다
솜양지 꽃잎처럼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떠나갈까,
사라질까,
당신으로 인해 봄날 다 가도록
나도 원종일 흔들립니다.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한국불교영상통신강원

경전연구(야간반●통신반)●기초교리(통신반)

수강안내

제 2기 경전연구 야간반

과목 : 佛祖直指心體要節(불조직지심체요절)

고려말 최초의 금속활자목판본으로 전등록의 축소판.
7불(佛)과 33조사(祖師)의 심오한 법문이 한책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달마, 육조, 마조, 조주, 원오, 대혜, 영명선사의 마음에 대한 무진법문이 담겨져 있슴.

법사 : 원조각성(圓照覺性)스님
● 조계종 승가대학원 교수
● 탄허문화재단 삼일선원 원장

경전연구 (통신반)

과목 : 80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유식론, 금강삼매경론, 초발심자경문, 육조단경, 금강경, 서장, 선요, 원각경, 원인론, 불조직지심체요절, 대도직지, 중용직지, 천부경 등

법사 : 원조각성스님·화엄학연구원 원장·한국불교영상통신강원 원장

기초교리 (통신반)

과목 : 생활불교, 참선수행, 불교학개론, 한국불교사, 비교종교학 등

법사 : 선사스님, 법사스님, 교수님의 설법 또는 강의 녹음테잎

구 분	제2기 경전연구 야간반	경전연구 통신반	기초교리 통신반
1. 자 격	스님 또는 불교(교육·교양)대학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자		불교를 올바르게 배우고 싶은 분
2. 기 간	6개월	과목에 따라 다름	2년
3. 일 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7시~9시	매월 15일 수강교재 우편배달	
4. 장 소	화엄회관 법당	통 신 수 강	
5. 교 재	경전(책)	매월 비디오테잎6개 (컴퓨터 CD롬6개) +녹음테잎6개 +경전	매월 녹음테잎 2개
6. 등록금 수강료	등록금: 20,000원 수강료:월30,000원 교재제공	등록금: 100,000원 수강료:월88,000원 교재제공	등록금: 10,000원 수강료:월4,000원
7. 접수처	본 강원: 사무국/붓다의 메아리 (051)809-8945~6		
8. 입학식	1998년 3월 9일 오후 7시	매월 15일 우편배달 (각자 통신수강)	
9. 특 전	본강원 규정에 따라 전법사 자격을 부여함		수료자는 포교사과정 우선 입학가능

♣ 접수처 : 한국불교영상통신강원 사무국 ☎ (051)809-8945~6
부산시 진구 부전1동 390-34 성원주차빌딩 2층